



사진으로 보는 신구 엑스포 2013

창의력과 젊음의 그래픽아츠과 졸업작품전

신구대학교(총장 이승겸)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1·2 전시장, 산학관 광장, 복지관 지하 1층, 식물원, 박물관 등지에서 신구 엑스포 2013을 개최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약 80명의 그래픽아츠과(학과장 최재혁) 2학년 학생은 졸업작품전을 통해 창의력과 젊음이 살아있는 다양각색의 작품을 공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기획에서 전시까지 졸업생의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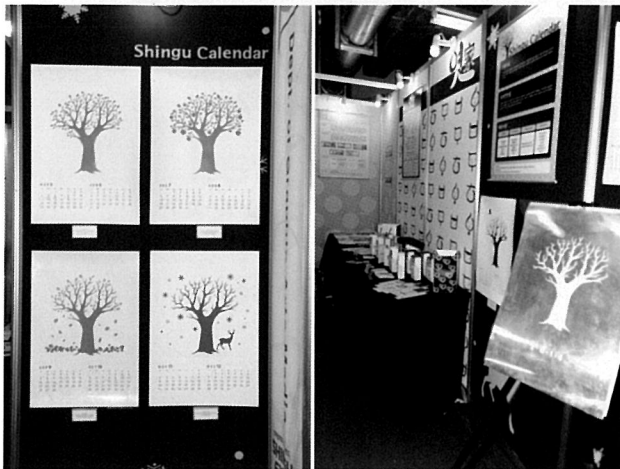
매년 10월 개최되는 신구 엑스포를 통해 그래픽아츠과 졸업생들은 창의력과 젊음이 어우러진 값진 작품들을 선보인다. 각각의 작품은 기획에서 전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졸업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완성됐다.

▶ 5명 교수진의 생생한 조언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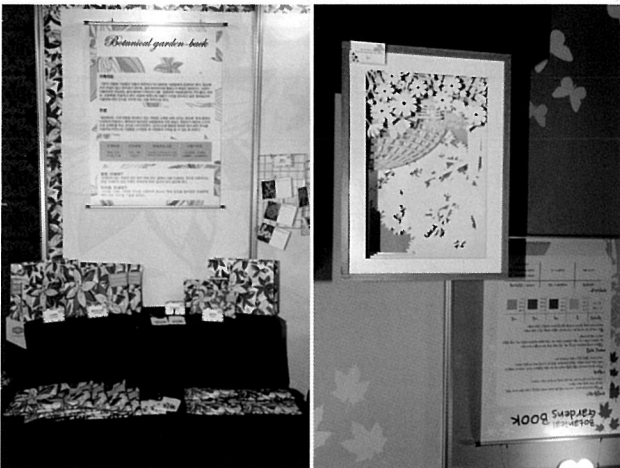
전시를 위해 그래픽아츠과 졸업생들은 15개 조로 나눠 지난 5월부터 만 5개월을 준비했다. 졸업작품전 전체 진행은 최재혁 학과장이 맡았으며, 5명의 그래픽아츠과 교수들이 각각 3개 조씩을 전담해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작품 완성



15개 조는 남녀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직됐으며, 각각의 조는 선출된 조장의 지휘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 작품이라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다.

▶ 사회를 배우는 의견 대립 그리고 조율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때로는 견해 차이로 감정이 대립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사회를 배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의견 대립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보다 나은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통과리데다.

▶ 전시대에 오르자 힘들었던 기억은 저편으로

수많은 산고의 과정을 겪고 졸업작품이 탄생한다. 탄생한 작품이 전시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은 스르르 녹아 내린다. 다행히 작품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쉬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살 만한 작품이라고 기를 불어넣어주는 선배가 있고,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 그래픽아츠과 특성 살린 팝업북 특수인쇄

각각의 작품들은 저마다 그래픽아츠과의 특성을 살려 팝업북, 패키지인쇄, 특수인쇄 등으로 승화된다. 특히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많다. 유아용 작품은 특수기법을 적용할 여지가 많아 인쇄의 표현력을 한층 더 넓혀주기 때문이다.

